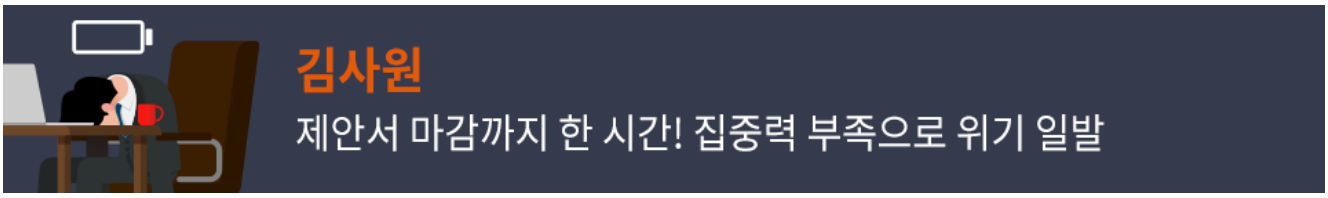
이것 하나면 안심, 위기 상황 극복템

스마트 워크

모든 직장인들의 **업무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스마트 워크 방법**을 소개합니다.



드라마 속 직장인들처럼 여유롭게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러나 실전 직장생활은 생각만큼 녹록하지 않습니다. 매주 계획에 맞춰서 업무 일정을 정하지만,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항상 생기곤 하죠. 당장 오늘 마무리해야 할 제안서, 외근 중 받은 당일 보고서 제출 메시지까지. 촉박한 시간 앞에서 눈 앞이 캄캄해지는 당신. 그러나 무턱대고 야근할 필요 없습니다. 포기하지도 맙시다. 스마트워크 시대,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'위기극복템'들이 있으니까요. 여기, 업무 중 생기는 수많은 '위기 상황'을 탈출하게 해줄 스마트 워크 아이템들을 소개합니다.





집중력 '급상승'이 필요할 때, 타임 타이머

입사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김 사원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. 실무 투입 뒤 처음으로 마케팅 제안서 작성 업무를 맡았지만, 데드라인 1시간 전까지 제안서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물론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. 근무 시간에 제안서에만 시간을 투자하고 싶었지만, 다른 일들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. 어제는 마음 먹고 하루 온종일 시간을 투자했지만, 결국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. 입사 후 처음 맞이한 커다란 위기! 지금부터라도 김 사원이 챙겨야 할 아이템은 바로 '타임 타이머' 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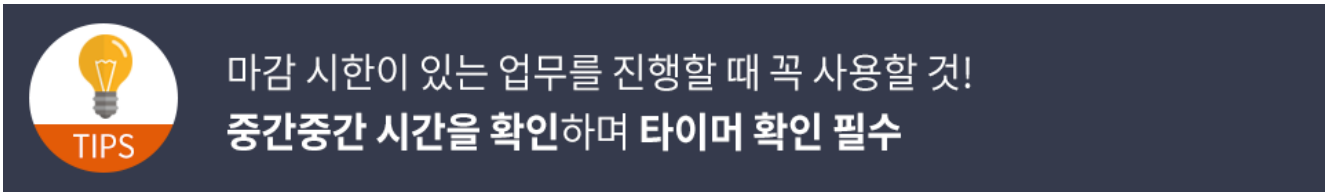


〈출처: slate.com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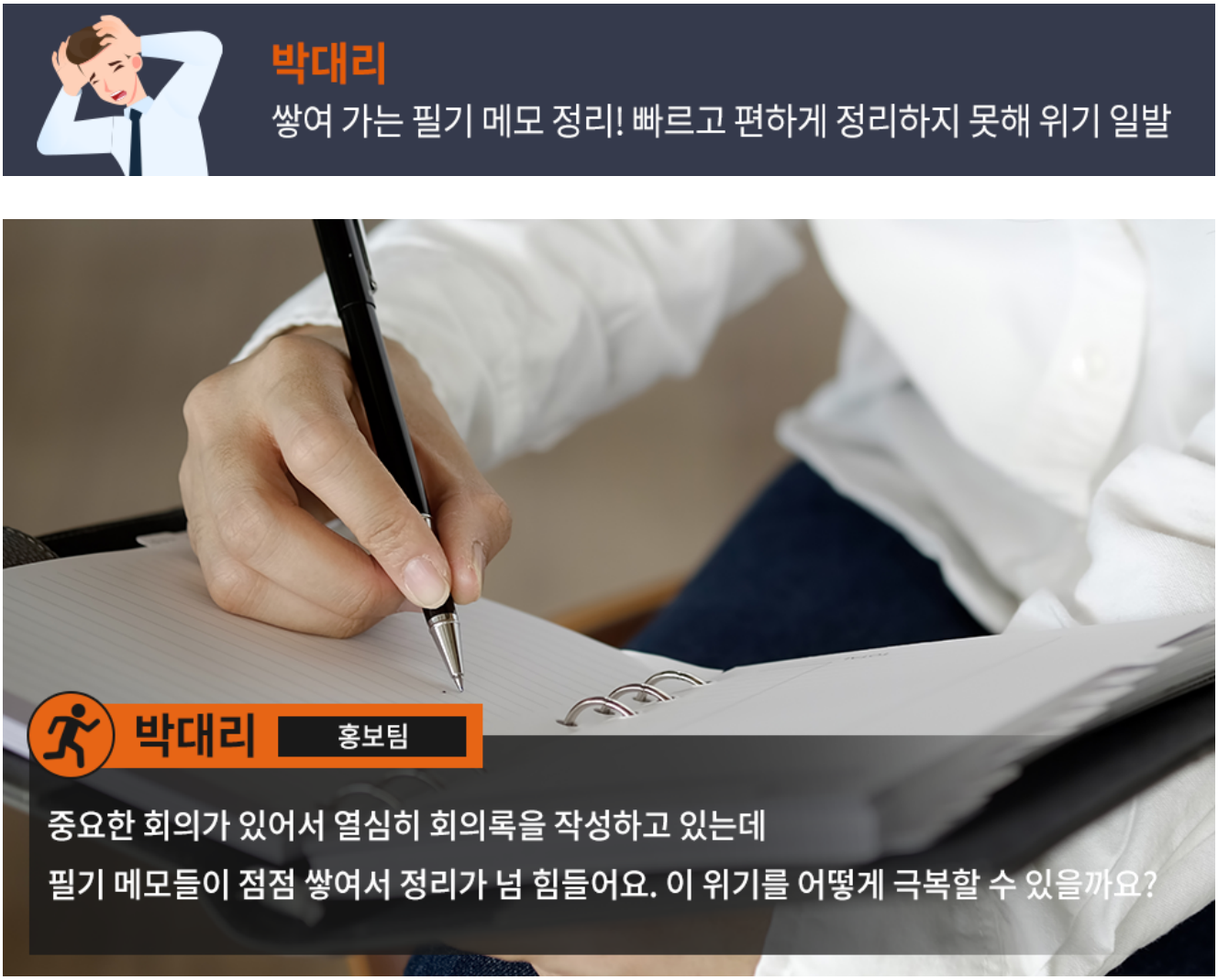
타임 타이머는 소리나 숫자로 예약한 시간을 알리는 알람은 아닙니다. 시간을 효과적으로 '시각화' 해 집중력을 높여주는 아이템이죠. 원래 타임 타이머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,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쓰던 물건입니다. 빨간 색은 긴장감을 주는 색이죠.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면 시계 모양 원 안이 빨간 색으로 채워집니다.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원 안의 빨간 색 면적이 점점 줄어들죠.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빨간 색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일을 끝내야 할 듯한 압박감을 느낍니다. 덕분에 자연스럽게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

글로벌 기업인 구글 직원들이 애용한다고 알려지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타임타이머. 구글 직원들은 '스프린트'라는 집중업무 프로세스 시간에 타임타이머를 활용한다고 합니다. 타임 타이머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처럼 신박한 방법으로 시간을 알리는 타임 타이머, 쓰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?







이 글씨 그대로~ 원터치 메모저장, 네오스마트펜

박 대리는 요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. 팀 내 에이스로 인정 받기 시작하며 참석할 회의도, 메모할 사항도 많아진 이유입니다. 여러 곳에서 나온 메모를 하나하나 분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“필기 내용을 타이핑해 저장해두면 되지 않냐”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지만, 이 또한 시간이 걸리는 방법입니다. 메모한 내용은 바로 디지털 변환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. 이런 박대리에게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, ‘네오스마트펜’ 입니다.



〈출처: 네오스마트펜 홈페이지〉

필기한 내용을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는 네오스마트펜. 이 펜은 노트에 펜으로 쓴 글씨를 바로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. 볼펜 아래에 달린 광학식 센서는 종이에 인쇄된 패턴을 인식합니다.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정밀하게 옮겨줍니다. 노트북으로 타이핑하는 것보다 훨씬 세밀하게 메모할 수 있겠죠. 덕분에 글씨뿐 아니라 아이디어 스케치나 도면처럼 그림이 필요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더욱 놀라운 건 멀리 떨어진 스마트폰과 '연동'이 가능하다는 사실! 스마트펜과 노트만 있어도 메모를 저장할 수 있으니 든든합니다.

필기 메모 정리를 위한 위기탈출템, 네오 스마트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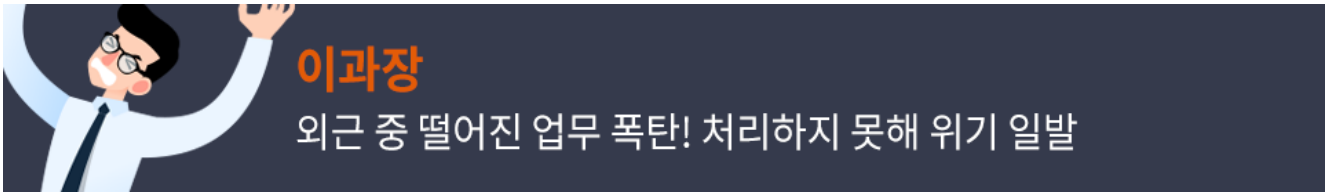
<출처: 네오 스마트펜 홈페이지 & 블로그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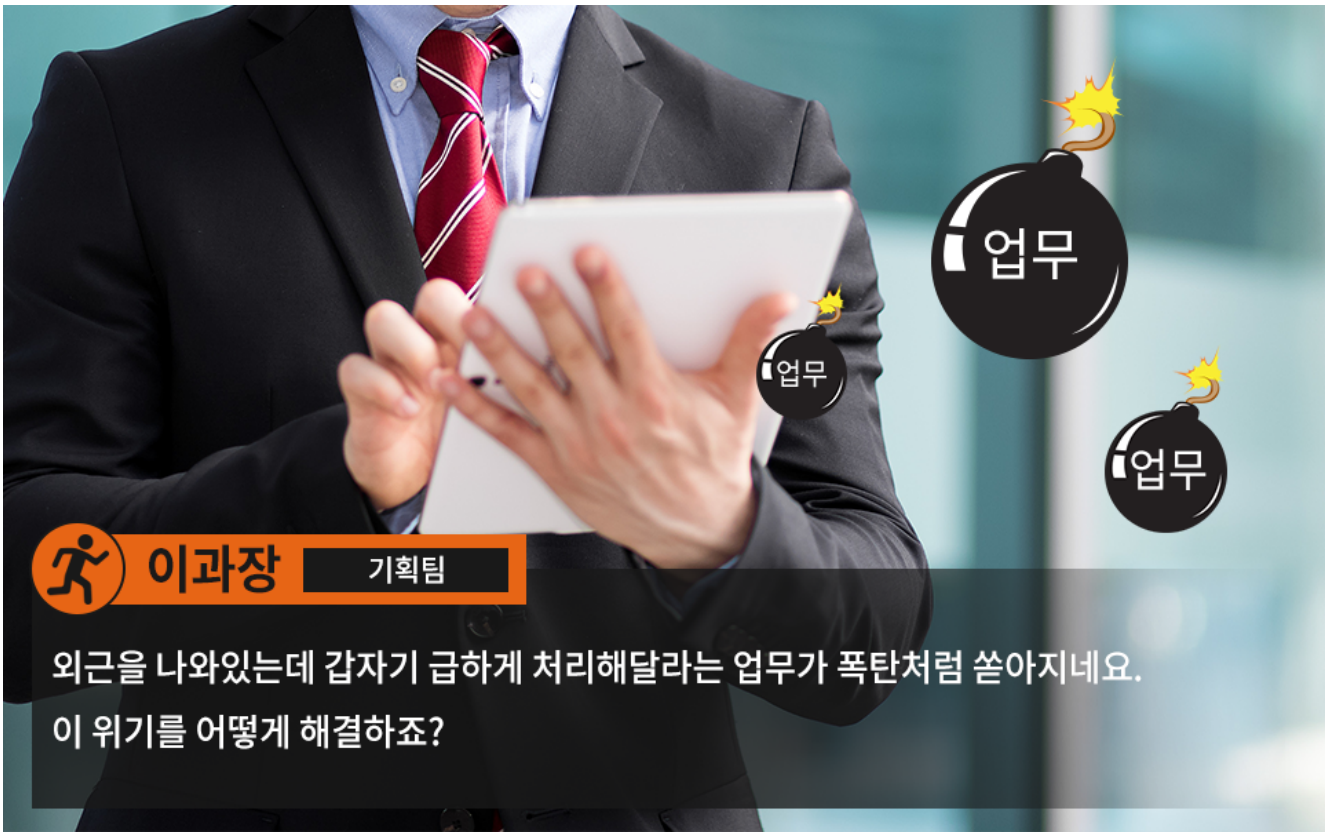
사용법도 놀랍도록 간단합니다. 설정 아이콘을 눌러 펜과 스마트폰을 연결한 뒤 전용 노트에 메모하면 됩니다. 이렇게 간편하니, '제대로 저장됐는지' 의심스럽기도 합니다. 네오스마트펜은 메모 그대로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송해주도록 설계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. 그뿐만이 아닙니다. 설정을 통해 펜의 필압까지 조정 가능해 글씨를 세심하게 옮겨올 수 있습니다. 필기를 정자체로 변경할 수도 있어 글씨 못 쓰는 사람에게도 실용적입니다. 그밖에 원노트, 구글 드라이브, 구글 캘린더 등 다른 앱과 연동은 물론 검색, 공유, 복원 기능을 사용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TIPS

네오 스마트펜 전용 플래너를 사용하면
구글 캘린더와 연동하여 일정을 기록할 수 있다.

참고 영상 바로 가기 >





들어는 봤나 휴대용 키보드, 멀티 키보드

외근, 외근, 또 외근. 오늘 이 과장의 캘린더 앱은 외근 스케줄로 가득합니다. 회사에 들어갈 틈 없이 온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날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프로젝트 보고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라는 부장님의 지시를 전달 받았습니다. 사무실에 복귀해 처리하자니 너무 늦고, 밖에서 작성하자니 마땅한 도구가 없습니다. 위기일발의 상황을 극복할 아이템이 없을까요? 이 과장에게 '멀티 키보드'를 추천합니다.



〈출처: 로지텍 홈페이지〉

컴퓨터뿐 아니라 다른 기기에도 연결해 쓸 수 있는 키보드가 있습니다. 그 이름은 멀티키보드입니다. 노트북을 밖에 들고 나가기 부담스러울 때, 이 키보드 하나만 챙기면 태블릿, 스마트폰과 연결해 불편 없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 키 배열이나 키감이 일반 키보드와 비슷한 데다 휴대성도 좋아 많은 직장인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. 특히 태블릿, 스마트폰에 내장된 작은 키보드에 불편을 토로했던 직장인들 사이에서 '필수템'으로 등극했습니다.

외근 시 업무 폭탄 위기탈출템, **멀티 키보드**



<출처: 로지텍 홈페이지>

가장 큰 매력은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블루투스를 연결해 태블릿, 스마트폰과 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태블릿을 쓰며 스마트폰으로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는 등 '멀티 태스킹'도 가능해 더욱 좋습니다. 다양한 기기와 호환하니, 기기를 바꿔 연결할 때 연결 속도가 늦지는 않을까요? 그러나 최근 블루투스 기술이 발전하며 대부분의 키보드는 연결이 늦어지지 않습니다. 그만큼 쾌적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죠. 멀티 키보드가 있다면, 언제 어디서든 문서 작업을 척척 해내는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TIPS

노트북의 키감을 싫어한다면 연결하여 **키보드로 사용**할 수 있다.

참고 영상 바로 가기 >

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직장생활 속 수많은 위기상황. 그러나 어떤 상황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. 위기가 찾아와도 좌절하거나 '마상' 입지 마세요. 오늘 소개해드린 스마트워크 아이템들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진정한 직장인 되시길 바랍니다.



*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 뉴스룸에 저작권이 있습니다.
* 따라서,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.